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 <84>

급성 중독 환자의 올바른 처치와 이해

전병조 응급의학과장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학회
대한외상학회
미국응급의학회



약물종류 알면 큰 도움... 억지로 토하게해선 안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열등감과 자살감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의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살을 목적으로 농약을 음독하거나 약물을 다량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자살은 90년대 전체 사망 순위 10위에서 2010년대 4위까지 상승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고나 자살 시도에 의한 급성 중독환자는 연간 약 40만명 정도 발생하며, 이중 8만명이 응급실에 찾아 치료받는다. 치료용 약물에서는 수면제가 중독 원인 물질의 절반을 차지하고 진통·해열제, 항우울제 등의 순서이며 일반 물질에서는 농약이 가장 많다. 사망 환자는 제조제나 살충제 같은 농약이나 부식제 음독,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경우에서 주로 발생한다.

▷신속한 해독제 투여=급성 중독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중독된 물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내서 그에 맞는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환자는 중독된 물질에 따라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 중독증후군(toxidrome)이라고 한다. 중독증후군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어떤 독성 물질을 음독했는지 알 수 없을 때 환자의 임상 증상으로부터 중독 물질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중독증후군은 진통제와 수면제의 경우 의식과 호흡 저하를 보이고 유기인계 농약은 침과 눈물, 땀, 기관지 분비물 증가와 근력 저하에 의한 호흡 저하를 보이며, 감기약이나 전립선염 치료로 사용되는 항콜린성 약물은 의식 저하와 동공 확장, 건조한 피부 등을 보인다. 아스피린과 같은 살리실산은 의식 저하와 호흡 및 맥박수 증가를 보이고, 인슐린 같은 혈당강화제는 의식 저하와 식은땀, 맥박수 증가를 나타내며, 항정신병 약제 등은 의식 저하와 근육긴장도 증가, 발열 등을 보일 수 있다. 마약류는 흥분 상태와 동공 확장, 식은땀, 맥박수 증가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초기 응급조치와 해독=초기 응급처치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수액과 혈압 상승제를 투여해 기도와 호흡,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음독에 의한 중독일 경우에는 중독 물질의 종류와 음독량, 음독 후 경과 시간, 과거 병력 등에 따라 위장관에 남아 있는 중독 물질이 더 이상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중독 물질을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위세척과 활성탄 투여가 추가될 수 있다.

과거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던 구토 유발은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중독 물질에 따라 흡인성 폐렴이나 식도 손상 등 오히려 환자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다. 위세척도 음독 후 경과 시간이 길거나 소량을 음독한 경우, 독성 물질이 염산, 양잿물 같은 강산이나 강알칼리, 석유와 화학제품 등은 구토 유발과 같은 종류의 합병



전남대병원 전병조 응급의학과장이 약물 중독 환자 발견시 대처 요령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우울증 증가... 급성 중독환자 연 40만명 사망원인 자살 4위... 수면제·농약중독 사망률 높아

증 발생 위험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초기 처치에도 불구하고 체내로 흡수된 중독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해독제 투여와 혈액투석, 그리고 소변의 산도(pH) 변경 등이 있다.

중독 물질에 따른 특징적인 해독제를 살펴보면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는 아세트시스테인을 사용할 수 있다. 철분제 중독은 디페록사민, 심부전 치료제인 디곡신 중독은 디곡신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요를 통해 배출을 증가시키는 디곡신 선택적 해독제(digibind),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화물(cyanide) 중독에는 아질산나트륨과 치오황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다.

유기인계 농약 중독은 아트로핀과 프라리독심(pralidoxime), 관절염이나 피부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단순 중독은 메틸렌 블루를 사용하며 비소, 금, 수은 등 급속에 의한 중독에는 다이사이클 유도체(British Anti-Lewisite: BAL)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독제는 중독 물질이 체내 장기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와 해당되는 중독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음독한 경우라도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나 중독 물질이 환자에 미치는 독성도의 차이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혈액을 흡착제가 부착된 필터 사이로 통과시켜 혈액 내에 있는 약물을 제거하는 방법인 혈액투석은 아미노폴린, 중금속, 아스피

린, 항생제 등에 중독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중독환자 발견시 대처 요령=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먼저 119에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의식 상태와 호흡, 순환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의식이 저하된 환자는 옆으로 눕혀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민간요법을 시도하느라 신고가 늦어지거나 발견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의사에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증상 발현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저하돼 있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거나 식유제품,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을 먹은 사람에게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최초 발견자는 환자가 음독한 약물의 처방전 또는 환자 주변에 떨어진 약이나 중독 물질, 포장지, 병, 환자가 의식소실 전에 제공한 정보, 음독 추정시간 등을 의사에게 반드시 제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노출될 수 있는 약물이나 중독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인이나 사고에 의한 급성 중독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여러 요인으로 심신이 나약해진 환자들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울증과 정신 질환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가족들과 친구들,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신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입원환자들의 쾌유 기원합니다”

전남대병원, 어려운 환자들에게 과일바구니 선물



전남대병원이 가족·친지가 없거나 환경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사랑의 과일바구니 선물’ 행사를 갖는다.

전남대병원은 외롭고 힘들게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치료로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덜어주고, 쾌유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음달부터 과일바구니 선물을 통한 위로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의사·간호사·직원 등으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물대상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해 매달 2~3회씩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저소득층·중증외상·난치성 질환·합병증에 따른 장기입원 등 특별한 관심과 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행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환자가 경직된 마음을 풀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질환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일바구니 선물행사는 최근 병원에서 영화촬영 중이던 톱스타 김상경씨가 어려운 입원환자 소식을 듣고서, 과일바구니를 들고 깜짝 방문한 것이 계기가 돼 병원측이 자체행사로 기획한 것이다.

병원관계자들은 이날 김상경씨의 과일바구니 위문이 해당 환자에게 기쁨을 선사함과 동시에 주변 환자들에게도 관심을 나눠줌으로써 즐거운 애기꽃을 피운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과일바구니를 통한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 행사를 구상한 허락 전남대병원 홍보실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환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치료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방암 예방의식 향상

화순전남대병원 ‘핑크리본 힐링콘서트’



화순전남대병원(원장주대행 정진) 유방암센터와 환우모임인 ‘백일홍회’(회장 박은성)는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핑크리본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유방암 예방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매년 10월 광주에서 행사를 개최해오다 화순전남대병원으로 옮겨 처음 열렸다.

백일홍 회원들의 댄스와 관소리, 통기타 연주, 재즈 피아니스트 성현용씨와 국악인 박봉서·남상일씨 초청공연, 간호사들의 유방암 예방체조 등이 어우러져 환자와 보호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국 핑크리본 합창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일홍회 합창단의 멋진 화음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2002년 결성된 백일홍회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90여명이 활동중이며, 구성원 중 1/3은 유방암 환자이고 2/3은 완치자들이다. 회원 중 80%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았거나 치료중이다.

폐동맥고혈압 진단·치료

조선대병원서 건강강좌



조선대병원(병원장 민영돈)이 최근 병원 하중원홀에서 폐동맥고혈압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폐동맥고혈압에 관한 건강강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루푸스와 폐동맥고혈압(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과 ‘의료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강선복 간호사)’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상이 생겨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폐동맥고혈압은 희귀난치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폐동맥고혈압의 증상은 호흡곤란, 권태감, 피로, 흉통 등으로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다. 치료가 늦을 경우 평균 수명이 3년 미만인 위험한 질환으로 조

기진단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폐동맥고혈압의 경우 일부 약제가 보험에 등재됐지만 아직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환자 본인부담액이 큰 질환인데,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참석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기동 제일OP 901호
▶분양 평수 53P
▶20층 건물중 9층 코너, 창가, 전망좋은
▶시세-1억 7000만원
▶매매가(일시불 조건)-1억 2000만원

오피스텔 매매
주인 직매 H. 010-4667-9300

수기동 제일OP 2001호
▶분양 평수 77P
▶20층 건물중 20층 코너, 창가, 전망최고
▶시세-2억 5000만원
▶매매가(일시불 조건)-2억 2000만원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대지148P, 건물 480P, 신축건물
▶5층 건물(1층 82P, 2~5층 각 100P)
▶감정가/ 시세-23억원
▶매매가-22억원(일시불 조정가)
▶대출-14억원(이자 월 560만원)
▶이전비-없음(법인체 양도 양수)
▶주소-순천시 왕지동 872-6번지

주인 직매 H. 010-4667-9300